



보도시점

2025. 11. 4.(화) 08:20
경제장관회의 종료시

배포

2024. 11. 4.(화) 08:00

김장재료 안정 공급 등으로 소비자 김장부담 완화 총력 대응

- 배추 등 김장재료 공급 여력 충분하며, 기상에 따른 일시적 수급 불안은 정부 비축·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하여 현재의 안정적인 공급 상황 유지
- 김장재료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농축산 300, 수산 200)을 투입해 김장재료 최대 50% 할인 지원
- 10월 농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1.1% 상승, 전월대비 0.2% 하락, 다만, 축산물은 전년 기저효과로 상승하였지만 상승폭은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장철을 앞두고 발표한 국가데이터처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하여 안정세를 보였으며, 축산물(전년대비 5.3%↑)과 가공식품(전년대비 3.5%↑), 외식물가(전년대비 3.0%↑)는 9월 대비 상승폭(전년대비, 전월대비)은 완화*되었다.

* 전년대비 : (축산물) ('25.8) 7.1% → ('25.9) 5.4% → ('25.10) 5.3%, (가공식품) ('25.9) 4.2 → ('25.10) 3.5, (외식) ('25.9) 3.4 → ('25.10) 3.0

** 전월대비 : (축산물) ('25.8) 1.9% → ('25.9) 0.6% → ('25.10) 0.6%, (가공식품) ('25.8) 0.2 → ('25.9) -0.1 → ('25.10) 0.1, (외식) ('25.9) 0.3 → ('25.10) 0.1

채소류는 8월 폭염·가뭄, 9월 잦은 강우로 무름병 등 병해가 발생하여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배추·무 35.5천톤)을 추석 전후 공급하고, 가을 작형 재배면적도 증가(배추 2.5%↑, 무 7.4%↑)하여 소비자물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산 가격 상승 등으로 강보합세인 축산물과 잦은 비로 수확이 지연된 쌀은 11월에도 자조금 및 유통업체 협업을 통한 할인 행사를 추진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쌀은 가을장마로 인해 늦어졌던 수확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소비자쌀값*도 향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쌀 할인행사를 연장 추진(당초 10월말 →11월말, △5천 원/20kg)할 계획이다

* 소비자쌀값 동향 : (10.2) 68,435원/20kg → (10.16) 66,075 → (10.31) 65,118

한편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이하 해수부)는 다가오는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국민 부담 경감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장 수요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가정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겠다는 비율은 62.3%로 전년(64.5%)보다 2.2% 감소하고, 4인 가구 기준 김장규모는 18.3포기로 전년(18.5포기)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김장배추 수요도 지난해(557천톤)보다 5.2% 감소한 528천톤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장에 사용하는 주요 재료* 공급 여건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추석 연휴부터 지속된 강우로 무름병 등 병해가 확산되어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무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재배면적 증가와 농업인의 적극적 생육관리 노력이 더해져 김장용 가을배추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2%늘어난 1,201천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최근 작황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김장이 본격화되는 11월 중순 이후에는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14개 품목)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대파, 쪽파, 양파, 생강, 갓, 미나리, 배,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 배추 도매가격(10.하순) : (평년) 2,501원/포기, ('24년) 4,014 → ('25년) 2,126(평년비 15%↓, 전년비 47%↓)

양념에 사용되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배, 천일염, 새우젓 등은 생산·저장량이 증가하여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 다만, 산지 가격이 상승한 마늘과 지속된 강우로 주산지 습해가 발생한 쪽파, 멸치 생산량 감소 영향을 받은 멸치액젓은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량 : 건고추 62천톤(전년비 1.0%↑) / 저장재고량(9월말기준) : 마늘 87(2.8%↑), 양파 525(4.1%↑)

천일염 237천톤(전년비 17.9%↑), 젓새우 9,856톤(1.1%↑), 멸치 74천톤(8.0%↓)

정부는 소비자들의 김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정부 비축물량과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김장재료의 공급을 최대한 늘린다. 배추 36.5천톤(비축 5, 출하조절시설 3.5, 계약재배 28)과 무 11천톤(비축 2, 계약재배 9)을 김장 성수기에 집중 공급하고, 고추, 마늘, 양파, 천일염은 정부 비축물량을 가공업체와 유통업체 등에 공급하여 안정적인 공급 상황을 유지할 계획이다.

둘째,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 총 500억원을 투입하여 소비자 부담을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농수물은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형·중소형마트 등에서 김장재료 전 품목에 대해 할인을 추진(10.30~12.3)하고, 수산물은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김장재료인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수산대전_김장 특별전」(11.13~11.30)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11.19~11.23)를 진행한다.

셋째, 김장재료 원산지 표시 단속과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김장재료 수급 관련 정보도 적기에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양을 김장을 충분히 담글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요약)

담당 부서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책임자	단 장	배민식 (044-201-2681)
		담당자	서기관	김성만 (044-201-2685)
(할인지원)	식생활소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하경희 (044-201-2271)
		담당자	사무관	안창석 (044-201-2285)
(엽근채소) (양념채소)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정재환 (044-201-2231)
		담당자	사무관	김동욱 (044-201-2232)
		담당자	사무관	장성두 (044-201-2236)
(과일)	원예경영과	책임자	과 장	신지영 (044-201-2251)
		담당자	사무관	이창형 (044-201-2060)
(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동헌 (044-201-1810)
		담당자	서기관	정정희 (044-201-1815)
(수산물)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류선형 (044-200-5440)
		담당자	사무관	장석준 (044-200-5447)

가. 수급전망

- 주·부재료 모두 생산량 증가 등으로 공급 여력 충분하나, 생육중인 배추·무는 작황 변동 가능성 및 마늘·멸치액젓은 가격 강세 전망
 - 주재료(배추·무)는 무름병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증가 전망, 다만 향후 기상요인 등으로 작황 변동 가능성 상존
 - * 배추 1,201천톤(전년비 3.2%↑), 무 350천톤(전년비 7.2%↑)
 - 마늘 저장 중 감모율 증가, 멸치액젓 생산량 감소로 가격 강세 전망

◆ 공급 여건이 대체로 안정적이나 기상 상황에 따른 일시적 수급불균형 대비 필요

나. 수급 안정대책

① 안정적 공급 및 생산 지원

- (공급안정) 농협 계약재배물량 분산 출하, 정부가용물량을 적기 방출 등으로 안정적 공급 상황 유지
 - * [배추] 36.5천톤(비축 5, 출하조절시설 3.5, 계약재배 28), [무] 11천톤(비축 2, 계약재배 9), [건고추] 0.5(비축 0.5), [마늘] 0.46(비축 0.26, 계약재배 0.2), [양파] 1(비축 1), [천일염] 3(비축 3) 등
- 가을배추·무 생산 감소시 겨울작형 조기 출하(12.하순→12.상·중순) 유도
- (생산안정) 관계기관 합동 생육관리 협의체* 운영을 통해 안정생산 지원
- (수요분산) 가정 수요 집중기(11.중순~12.상순)에 김치업체 물량 확보 최소화 유도

□ 소비자 부담 완화

- (농축산물) 김장철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을 투입, 온·오프라인에서 김장재료 등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25. 10. 30 ~ 12. 3, 5주간)
 - 자조금 활용 할인 병행(한돈 11.13.~12.3, 마늘 11.10.~12.5/ 최대 20% 할인)
- (수산물)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원을 투입, 「대한민국 수산대전-김장철 특별전」('25.11.12~30, 최대 50% 할인)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25.11.19~23, 최대 30% 할인)

□ 소비자 홍보 및 안전성 관리

- '알뜰장보기' 등 김장재료 가격 정보 제공으로 합리적 소비 유도
- 김장 채소류 부정유통 단속(10.27.~12.5.) 및 안전성 관리(800건) 강화